

動資部 石油類제품가격 조정

- B-C油가격 2.66% 인하
- 나프타가격 5.1% 인상

정부는 지난 3월 8일 국내석유제품중 일부 품목의 가격을 조정,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가격(소비자)을 5.1% 인상하는 대신 산업용 원료인 B-C油가격은 2.66% 인하했다.

이에 따라 중전 ㄹ당 1백61원85전하던 나프타가격은 1백70원10전으로 오르고, 1백90원61전 하던 B-C油는 1백85원76전으로 내렸다.

또 B-C油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유험합량1.6%인 低硫黃B-C油는 ㄹ당 2백원52전에서 1백95원42전으로, ▲유험합량 2.5% 저유험B-C油는 1백88원5전에서 1백83원3전으로, ▲유험합량 1.6% 경질중유는 2백27원82전에서 2백26원30전으로 각각 내렸다.

이밖에 유험합량 1.6%인 重油는 ㄹ당 2백10원77전에서 2백7원21전으로, 重油는 2백5원64전에서 2백2원23전으로 각각 인하조정됐다.

이번 가격조정으로 국내석유제품 평균판매가격은 稅前공장도 기준으로 0.64% 인하됐다.

정부는 이번 가격조정과 함께 나프타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나프타생산용 수입원유에 대해서는 5%를 부과하던 관세율을 1%로 낮추는 한편 석유사업기금(배럴당 1달러50센트)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.

동력자원부는 이번 가격조정의 배경에 대해 ①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精油社의 가동률은 脫石油정책으로 저조한데다가

정유사는 가격수준이 높은 휘발유, 제트油, 溶劑를 우선 생산하고 나머지 나프타를 석유화학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으며, ② 나프타가격이 저렴하여 나프타를 연료로 사용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, ③ 나프타가격의 국제가격과의 괴리로 나프타생산업체는 수익성이 좋은 임가공수출을 選好하고 있는데다, ④ 수급조정명령에 의한 정유업계의 나프타공급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.

최근의 나프타수급은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이 82년 76%에서 83년에는 95%로 증가하고, 최근에는 100% 수준을 시현하여 나프타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정유업계의 가동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60%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올해에 약 2만3천 B/D의 나프타가 부족(34% 부족)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오는 85년에는 50%를 수입해야 할 전망이다.

그러나 나프타수입가격은 배럴당 31.8달러인 반면 국내가격은 배럴당 29.3달러 수준으로 수입시 배럴당 2.5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여 실수요자나 정유사 모두 수입을 꺼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면서 나프타를 수입,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왔다.

한편 B-C油가격의 인하로 전기요금은 0.86%의 인하요인이 생겼으나, 韓電의 재무구조개선과 장기전원개발계획추진을 위해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. *